

오답노트 작성... 공부한 문제는 틀리지 말자

수능 D-66 전략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9월 모의평가가 끝났다. 이제 오는 11월 14일 치러질 수능만 남았다.

9월 모의평가는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것은 물론,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시를 접수한 이후에도 대학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정해놓은 대입 전형이 남아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시기다.

곧 다가올 추석 명절 연휴를 비롯해 수능까지 남아 있는 66일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다.

◇내가 공부한 것만큼은 틀리지 말자=8일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에 따르면 9월 모의평가 이후 수능을 앞둔 시점에서 오답노트를 작성한 뒤, 복습하는 공부법을 통해 아는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시험을 마친 후 가장 억울한 것이 '아는 문제를 틀렸을 때'라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아는 문제를 틀린 경험은 누구나 한번은 겪지만, 수능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면

평소 공부했던 장소가 아닌 다른 환경에서 실전 연습을

밤보다 오전·낮 시간에 공부 수능 시간 맞춰 컨디션 조절

큰 후회를 남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남은 60여 일간 공부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틀린 문제나 혹은 아직 '확실히 내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개념 등은 수능까지 계속 반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오답노트'다. 많은 학생들이 오답 노트를 정리해야 한다는 걸 모르지 않다. 다만 오답노트는 작성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를 반복해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머리에 저장되도록 하는 게 의미가 있다. 하루 일정 중 오답노트를 복습하는 시간을 만들어 꾸준히 실천하면 적어도 공부한 문제나, 알고 있는 문제를 틀리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수능 컨디션 조절은 지금부터=오전과 낮 시간에 집중하자. 수능 전날에도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하고 나서 잠자리에 들

어야지'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없을 것이다. 수능 당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히 잠을 자두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컨디션 조절은 단 며칠만으로도 이뤄지기 힘들다. 남은 학교 생활 중 시험이 치러지는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4시 32분(제2외국어·한문 응시자는 5시30분)까지 졸지 않고 수업에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수능을 앞둔 3학년 2학기에는 밤늦게까지 공부했다는 이유로 정작 낮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꾸벅꾸벅 조는 경우도 많다.

진학사 관계자는 "이런 습관은 컨디션 조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수능은 매우 긴 시간동안 높은 집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꾸준한 리듬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전을 반복케하는 연습=학교에서 치르는 모의평가와 실제 수능의 긴장감은 다르

다. 결과에 대한 부담감도 있으나, 무엇보다 평소 공부하던 교실에서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과 함께 치르는 모의평가와 다른 학교 교실에서 치르는 수능은 다를 수밖에 없다.

시험장에서 들리는 작은 기침소리에도 신경이 날카롭게 서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풀던 모의시험과 다르게 아침부터 오후까지 긴 시간 집중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수능 전 다른 환경에서 시험을 연습해보길 추천했다. 방에서만 공부했다면 다소 산만한 거실에서 공부를 해보거나, 독서실에서만 문제를 풀던 수험생의 경우 카페에서 연습을 해보는 등 주변 환경에 변화를 주는 연습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일주일에 하루는 오전 8시 40분부터 저녁 5시 40분까지 수능과 동일한 시간을 두고 모의고사 연습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평가팀장은 "수능을 6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실제 수능과 같이 모의고사 연습을 하거나 수면 시간을 조정하는 등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대, 지역 내 창업기업 지원 나선다

'2019 디지털 마케팅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실시

창업 선도대학으로 자리매김한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지역 내 창업기업의 매출증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광주대 창업지원단은 호남권에 있는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2019 디지털 마케팅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 수강생 20개사와 마케팅 지원 4개사를 지원하며 오는 16일까지 신청받는다.

판매 가능한 제품을 보유하고 호남권 소재지의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교육과 디지털 마케팅 엑셀러레이팅 등을 지원한다.

특히 광주대 창업지원단은 디지털 마

케팅 엑셀러레이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용 콘텐츠 제작 등에 500여만 원의 마케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대는 중소기업벤처부의 창업 선도대학 육성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3년간 55억 원의 국비를 받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비용과 마케팅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창업 관련 전문성과 현장감을 겸비한 전문가의 멘토링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역거점(원스톱상담창구) 구실을 하고 있으며, 창업기업의 유통판매 활성화를 위해 광주 RE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 융합형 스타 창업가 발굴에 나서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대, '2020수시' 장학금 대폭 확대

신입생 월 30~10만원 장려금, 성적우수자 4년 전장

교육부 선정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인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가 '2020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장학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호남대는 이번 수시모집에서 모집정원의 98.5%인 1624명을 선발하며, 수능 성적과 학생부 성적에 따라 4년간 등록금 전액면제와 학생 개인에게 매월 30만원에서 10만원씩 1년(12개월)동안 최대 360만원의 학업장려금을 추가(중복) 지급하는 장학혜택을 시행한다.

일반 학과의 경우 수능 3.75등급이내인 신입생들에게 8학기 등록금전액 및 240여만원의 학업장려금을 지급한다. 4.25등급 이내인 경우 4학기 등록금전액 및 160만원의 학업장려금, 4.50등급 이내인 경우 1학기 등록금 전액 및 80여만원의 학업장려금, 그리고 우수장학금과 장려장학금 등을 지급한다.

특히 호남대는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 수능 백분위점수 350점 이상인자에게 8

학기 등록금 전액 및 360여만원의 학업장려금을 지급하는 성적 우수장학금을 지난해에 이어 2020학년도에도 계속 지급한다.

또한, 호남대학교는 지역인재를 위해 광주·전남대학 최최초로 광주·전남북 지역 고교 졸업예정자 중 최최합격자 전원에게 입학금을 면제해주는 지역인재장학금을 시행하고 있다. 부모 중 한명이 호남대를 졸업한 경우 50만원의 '동문 가족장학금'도 추가로 지원한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새터민, 장애인 등을 위해 등록금 전액 등을 지원하는 사회배려장학금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차상위계층 한부모전형에 합격한 경우 등록금 전액면제와 1학년 두 학기 동안 매월 10만원의 학업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특별전형지원자 장학금 등을 운영, 등록금 부담 없이 면학에 정진할 수 있도록 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동신대 유튜브 공모전 시상식 동신대학교(총장 최일)는 9일 중앙도서관에서 '2019학년도 동신대학교 유튜브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상 1팀(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2팀(상금 각 50만원), 우수상 3팀(상금 각 30만원), 장려상 5팀(상금 각 20만원)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동신대 제공>

광주시교육청 신설 유치원 이름 공모

광주시교육청은 내년 개교 예정인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교명 공모를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광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매입형 유치원의 교명을 접수한다. 시교육청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내년 개원하는 신설 유치원은 지난 8월 20일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된 광주시 북구 용봉동 한스유치원으로, 2020년 2월 폐

원 후 3월 공립 단설 유치원(8학급 159명)으로 개원한다.

이번 교명 공모는 지역의 특색과 역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교명, 광주광역시와 법정동명을 반영하는 교명 등을 기본 방향으로 진행되며 타 지역에서 사용되어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교명은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교육청 '공지 사항'란의 공모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 어린이집 70% 재무회계 등 위반 적발

광주지역 어린이집의 70% 이상이 자치단체 집중 지도 감독에서 지적 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5개 자치구가 지난해 10~12월 '2018년 하반기 어린이집 집중 지도 감독'을 벌인 결과, 조사 대상 59곳 중 41곳(69.4%)이 76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회계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일반 17건, 안전·차량·CCTV 11건, 급식·

위생 2건, 보육료 부담 청구와 보육 교직원 임면이 1건 순이었다. 재무회계에서는 어린이집과 관련 없는 도서 구매 등이 적발됐지만 교차 점검 결과 심각한 회계 부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다수 지적사항이 퇴직금 적립과 영수증 첨부, 조리원 배치, 교직원 임면 보고, 운영위원회 구성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설월여고서 장항준 영화감독 초청 강연

조선대 체육예술교육사업단

조선대학교 '전라-제주권 체육예술교육기부사업단(단장 김현우)'은 최근 장항준 영화감독을 초청, 광주 설월여고와 동화고(교장 장세정)에서 '영화감독의 삶'이라는 주제로 '찾아가는 교육기부 렉처콘서트'를 진행했다.

사업단에서는 '대학생동아리 교육기부' 및 '진로체험·탐색 프로그램' 등을 통

해 교육기부 사업을 홍보하고,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꿈과 끼를 찾는 기회를 제공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감사로 나선 장항준 감독은 영화 '라이터를 췌라'로 데뷔, 기억의 밤 등 다양한 영화의 각본과 감독을 맡았으며 MBC 무한도전과 미스터 라디오 등의 예능에도 다수 출연해 활약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풍암동, 동부 센트레빌,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상가 1층 4거리 코너 800세대 APT 정문 앞
- 기타 부동산과 교환가능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기타 서비스 공간 10평 있음)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보 8천만원에 월300만원) 임대기간 만료후 월세 100만원 인상가능
- 매매 - 9억원(대출 2억5천만 포함)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350만원 문의. 010-6834-7400

